더밸류연구소 연구원 김규호 / 핵심 결과

같은 ESG인데 담은 기업은 달랐다

국내 주식형 ESG ETF 11개 편입 기업 비교 | 2026.10.22 장 마감 기준

국내 주식형 ESG ETF 11개가 담은 기업은 317곳이다.
11개 모두 담은 곳은 4곳, 1개 상품에만 있는 곳은 95곳이다.
다만 9개 상품에서는 10개 이상 상품이 함께 담은 14곳이 비중의 51.5~77.2%를 차지한다(9쪽).

11개 ETF가 모두 담은 기업

4곳 / 317곳

SK하이닉스, 삼성전기, KB금융, HD현대일렉트릭

지표	값	기준
1개 상품에만 편입	95곳(30%)	기업 단위, 11개 ETF
2개 이하 상품에 편입	179곳(56%)	기업 단위
운용사 1곳 상품에만 편입	137곳(43%)	운용사 7곳
평균 비중 상위 20개 중 미편입 상품이 있는 기업	16곳	평균은 미편입 0 포함
종목 명단 겹침(자카드) 평균	28.6%	55개 상품 쌍, 종목 단위
비중 중복도 평균	53.4%	50% 미만 23쌍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의 삼성전자 비중	0%	나머지 10개 2.00~30.31%

대상은 상품명에 ESG·사회책임을 명시한 국내 주식형 ETF 11개(패시브 7, 액티브 4, 운용사 7곳, 순자산 합계 8,053억원) 전부다. 같은 날짜(2026.10.22 장 마감)의 편입 내역만 썼다. 종목별 ESG 점수는 확보하지 않아 미편입 사유는 지수 규칙과 맞는지까지만 확인했다. 9개 상품은 TIGER KEDI혁신기업ESG30, FOCUS ESG리더스를 뺀 상품이다. 상품을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은 9쪽 아래에 정리했다. 수익률과 ESG 우열은 다루지 않는다.

02 조사 대상 / 03~04 공통 편입 / 05~06 중복도 / 07~08 선택이 갈린 기업 / 09 비중 집중 / 10~11 부록

자료: 각 운용사 홈페이지 PDF(2026.10.23 게시), 한국거래소 Open API(2026.10.22 시세) / 더밸류연구소 계산

조사 대상 ETF 11개

번호는 이후 모든 표와 그림에서 같은 상품을 가리킨다

번호	상품	운용사	구분	기초지수(비교지수)	ESG 평가	순자산 (억원)	주식 종목 수
1	RISE ESG사회책임투자	케이비자산운용	패시브	KRX ESG 사회책임경영(S)	KCGS 사회(S) 점수	5,307	126
2	KODEX 200ESG	삼성자산운용	패시브	코스피 200 ESG	KCGS 통합점수	1,308	112
3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설	삼성자산운용	패시브	MSCI Korea ESG Universal 30% Capped	MSCI ESG	163	70
4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설	미래에셋자산운용	패시브	MSCI Korea ESG Universal 25% Issuer Capped	MSCI ESG	170	70
5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미래에셋자산운용	패시브	MSCI Korea Country ESG Leaders Capped	MSCI ESG	139	31
6	TIGER KEDI혁신기업ESG30	미래에셋자산운용	패시브	KEDI 혁신기업ESG30	한국경제 ESG 평가위원회	169	30
7	FOCUS ESG리더스	브이아이자산운용	패시브	KRX ESG Leaders 150	KCGS 통합점수	65	149
8	ACE ESG액티브	한국투자신탁운용	액티브	MSCI Korea Country ESG Leaders Custom Capped(비교)	MSCI ESG(비교지수) + 자체·외부 평가	445	25
9	WON AI ESG액티브	우리자산운용	액티브	MK-iSelect AI ESG(비교)	지속가능발전소	123	57
10	PLUS ESG성장주액티브	한화자산운용	액티브	FnGuide 한화 ESG 성장(비교)	한화자산운용 자체	96	161
11	PLUS ESG가치주액티브	한화자산운용	액티브	FnGuide 한화 ESG 가치(비교)	한화자산운용 자체	66	190

순자산은 2026.10.22 종가 기준(KRX Open API). 주식 종목 수는 2026.10.23 PDF의 직접 보유 주식(우선주 별도). 11개 모두 다른 ETF와 선물을 편입하지 않아 직접 보유 주식이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다.

> 기준일 뜻: 운용사 홈페이지의 2026.10.23 PDF는 2026.10.22 장 마감 뒤 보유 구성이다. 비중은 수량에 2026.10.22 종가를 곱해 2026.10.22 NAV(현금 포함)로 나눈 값이다(한국거래소 PDF 구성비중과 같은 산식). 해외 주식형 1개와 채권형 4개는 제외했고, 탄소효율·기후변화·친환경 등 인접 테마 ETF 10개는 집계에 넣지 않았다.

자료: 각 운용사 홈페이지 PDF(2026.10.23 게시)·투자설명서, 한국거래소 Open API·ETF 기본정보 / 더밸류연구소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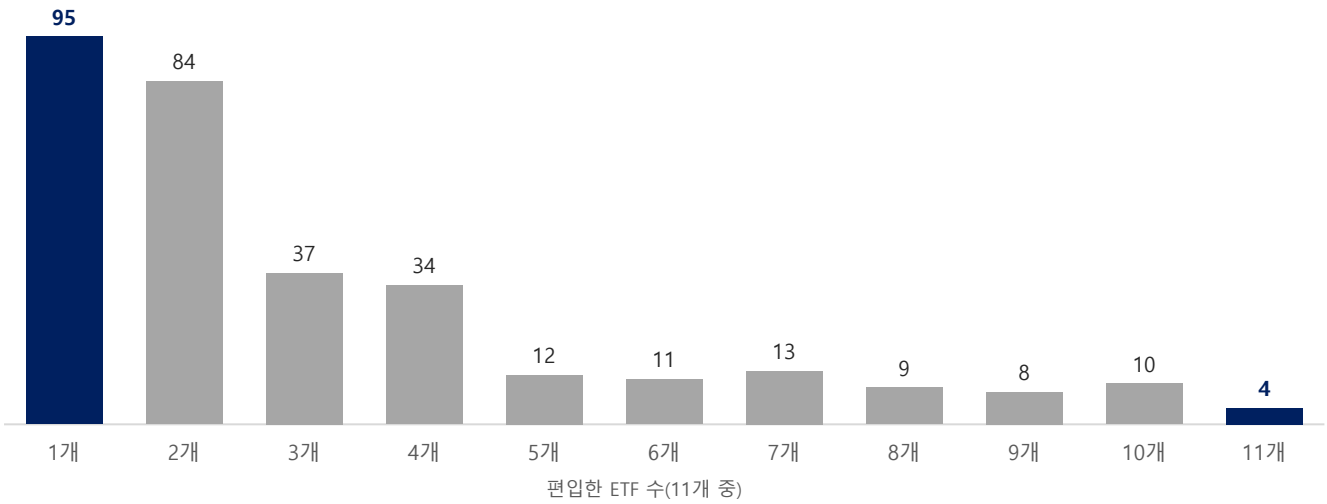
더밸류연구소 연구원 김규호 / 공통 편입

11개 모두 담은 기업은 4곳

편입 기업 317곳의 편입 ETF 수 분포

편입한 ETF 수별 기업 수

단위: 곳. 기업 단위(같은 회사 보통주와 우선주 합산), 11개 ETF 기준



1개 상품에만 있는 기업이 95곳(30%)으로 가장 많다. 2개 이하는 179곳(56%)이다. 10개 이상 상품에 들어간 기업은 14곳, 11개 모두 담은 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KB금융, HD현대일렉트릭의 4곳이다.

운용사 기준으로 보면 137곳(43%)이 한 운용사의 상품에만 들어 있다. 운용사 편입은 그 운용사의 대상 ETF 중 하나 이상에 편입된 경우로 셌다.

> 1개 상품에만 있는 95곳의 소속: PLUS ESG가치주액티브 29곳, PLUS ESG성장주액티브 26곳, RISE ESG사회책임투자 22곳, FOCUS ESG리더스 16곳, KODEX 200ESG 1곳, WON AI ESG액티브 1곳.

자료: 각 운용사 홈페이지 PDF(2026.10.23 게시), 한국거래소 Open API(2026.10.22 시세) / 더밸류연구소 계산

더밸류연구소 연구원 김규호 / 공통 편입

비중 상위 20개 기업 중 16곳도 갈렸다

11개 ETF 평균 비중 상위 20개 기업의 편입 현황

순위	기업	편입 ETF 수	평균 비중(%)	순자산 가중 평균(%)	최대 비중(%)	최대 상품	미편입 상품
1	삼성전자	10	19.90	26.66	30.31	2	5
2	SK하이닉스	11	16.85	25.12	28.56	1	없음
3	삼성전기	11	4.33	4.29	8.56	5	없음
4	KB금융	11	3.64	3.42	7.14	5	없음
5	SK스퀘어	10	3.32	4.32	9.29	5	6
6	신한지주	10	2.47	0.91	5.01	5	1
7	삼성SDI	9	1.83	0.57	4.12	5	1, 8
8	하나금융지주	9	1.79	0.71	4.29	5	1, 6
9	셀트리온	10	1.63	1.93	4.34	6	9
10	삼성물산	10	1.60	1.86	3.71	8	6
11	NAVER	10	1.56	1.57	3.41	6	9
12	두산에너빌리티	8	1.54	1.62	4.19	8	2, 6, 7
13	SK	10	1.45	1.22	3.05	8	6
14	LG전자	9	1.42	0.48	3.13	6	1, 9
15	LG에너지솔루션	9	1.19	1.33	3.41	8	6, 9
16	삼성바이오로직스	9	1.12	0.36	3.88	6	1, 9
17	현대차	8	0.99	0.49	3.14	6	1, 5, 8
18	HD현대일렉트릭	11	0.95	0.82	2.67	6	없음
19	SK이노베이션	9	0.94	0.75	1.93	11	6, 10
20	SK텔레콤	10	0.85	0.28	3.40	6	1

평균 비중 = 11개 ETF 비중 단순 평균(미편입 0 포함), 순위 기준. 순자산 가중 평균 = 2026.10.22 순자산으로 가중한 평균. 최대 상품·미편입 상품은 상품 번호. 상품 번호: 1 RISE ESG사회책임투자, 2 KODEX 200ESG, 3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설, 4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설, 5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6 TIGER KEDI혁신기업ESG30, 7 FOCUS ESG리더스, 8 ACE ESG액티브, 9 WON AI ESG액티브, 10 PLUS ESG성장주액티브, 11 PLUS ESG가치주액티브.

11개 모두 담은 기업은 상위 20개 중 4곳이다. 평균 비중 1위 삼성전자는 5번(TIGER MSCI KOREA ESG리더스)만 담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상품 간 비중 차이(최대 − 최소, 미편입 0 포함)가 3%p 이상인 기업은 25곳이다.

단순 평균은 상품마다 같은 무게로 센 값이다. 11개 상품 순자산의 82.1%가 1번(RISE ESG사회책임투자)과 2번(KODEX 200ESG) 두 시가총액 가중 패시브에 있어, 순자산으로 가중하면 삼성전자 26.66%, SK하이닉스 25.12%로 단순 평균보다 높아진다.

자료: 각 운용사 홈페이지 PDF(2026.10.23 게시), 한국거래소 Open API(2026.10.22 시세) / 더밸류연구소 계산

비중 중복도 평균 53.4%, 55개 쌍 중 23쌍은 50% 미만

두 ETF가 같은 종목에 같은 비중을 두는 정도

상품 쌍별 비중 중복도

단위: %. 종목 단위, 각 ETF 직접 보유 주식 합계를 100%로 환산. 1~7 패시브, 8~11 액티브

	1 RISE 사회책임	2 KODEX 200ESG	3 KODEX 유니버설	4 TIGER 유니버설	5 TIGER 리더스	6 TIGER KEDI30	7 FOCUS 리더스	8 ACE 액티브	9 WON AI액티브	10 PLUS 성장주	11 PLUS 가치주
1 RISE 사회책임		77.7	71.4	69.8	51.2	19.1	36.9	64.1	65.1	61.3	63.8
2 KODEX 200ESG	77.7		77.2	77.3	48.5	27.1	48.3	62.4	73.5	70.7	72.5
3 KODEX 유니버설	71.4	77.2		97.8	58.5	29.6	41.3	66.5	65.4	63.0	67.2
4 TIGER 유니버설	69.8	77.3	97.8		58.3	30.3	42.0	67.0	65.2	62.9	67.2
5 TIGER 리더스	51.2	48.5	58.5	58.3		32.9	38.1	66.5	43.1	35.8	38.5
6 TIGER KEDI30	19.1	27.1	29.6	30.3	32.9		33.0	25.9	25.6	22.7	25.3
7 FOCUS 리더스	36.9	48.3	41.3	42.0	38.1	33.0		35.8	37.2	32.6	39.8
8 ACE 액티브	64.1	62.4	66.5	67.0	66.5	25.9	35.8		65.0	58.4	59.3
9 WON AI액티브	65.1	73.5	65.4	65.2	43.1	25.6	37.2	65.0		65.8	67.0
10 PLUS 성장주	61.3	70.7	63.0	62.9	35.8	22.7	32.6	58.4	65.8		69.9
11 PLUS 가치주	63.8	72.5	67.2	67.2	38.5	25.3	39.8	59.3	67.0	69.9	

비중 중복도는 종목마다 두 ETF 비중 중 작은 값을 모두 더한 값이다. 구성 종목과 비중이 같으면 100%다. 가장 높은 쌍은 KODEX와 TIGER의 MSCI KOREA ESG유니버설(97.8%), 가장 낮은 쌍은 RISE ESG사회책임투자와 TIGER KEDI혁신기업ESG30(19.1%)이다. 쌍 유형별 평균은 패시브 간 50.8%, 액티브 간 64.2%, 패시브와 액티브 간 53.1%다.

3·4·7쪽은 기업 단위(보통주와 우선주 합산), 이 쪽과 6쪽은 편입 내역의 기본 단위인 종목 단위(우선주를 별도 종목으로 셈)다. 기업 단위로 다시 계산하면 비중 중복도 평균은 54.1%(쌍별 차이 최대 3.2%p), 자카드 유사도 평균은 28.9%다. 우선주를 담은 상품은 3·4번뿐이다. 중복도는 현금을 뺀 주식 합계를 100%로 환산해 계산하고, 4·7·9쪽 비중은 현금을 포함한 NAV 대비다. 현금 비중이 가장 큰 9번은 현금이 NAV의 11.56%라 두 분모의 차이가 가장 크다.

상품 번호: 1 RISE ESG사회책임투자, 2 KODEX 200ESG, 3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설, 4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설, 5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6 TIGER KEDI혁신기업ESG30, 7 FOCUS ESG리더스, 8 ACE ESG액티브, 9 WON AI ESG액티브, 10 PLUS ESG성장주액티브, 11 PLUS ESG가치주액티브.

자료: 각 운용사 홈페이지 PDF(2026.10.23 게시), 한국거래소 Open API(2026.10.22 시세) / 더밸류연구소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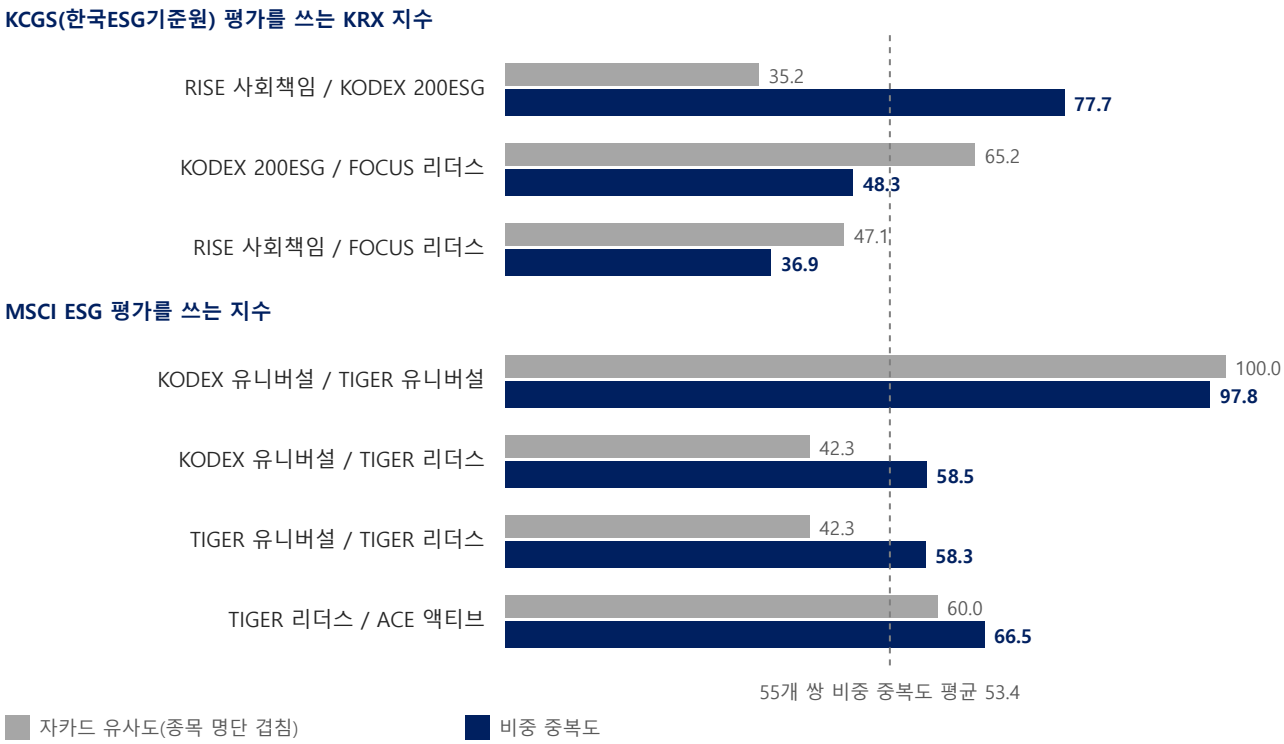
더밸류연구소 연구원 김규호 / 중복도

같은 평가기관을 써도 담은 기업은 달랐다

평가기관이 같은 지수끼리의 종목 명단 겹침과 비중 중복도

평가기관별 상품 쌍 비교

단위: %. 종목 단위. 점선 = 55개 쌍 비중 중복도 평균



한국ESG기준원(KCGS) 점수를 쓰는 한국거래소 지수 3종 사이의 비중 중복도는 36.9~77.7%다. MSCI 평가를 쓰는 유니버설 2종과 리더스 사이는 58.3~58.5%다.

KODEX 200ESG와 FOCUS ESG리더스는 103종목을 함께 담아 자카드 유사도가 65.2%이지만 비중 중복도는 48.3%다. 두 지수의 가중 방식은 유동시가총액과 ESG 통합점수로 다르다.

> 한국거래소 3개 지수는 평가 항목(사회 점수만, 통합 점수)과 가중 방식이 서로 다르다. MSCI 유니버설은 배제 기준에 걸린 기업을 뺀 나머지를 모두 담고, 리더스는 등급과 섹터 커버리지로 상위 기업을 고른다(부록 지수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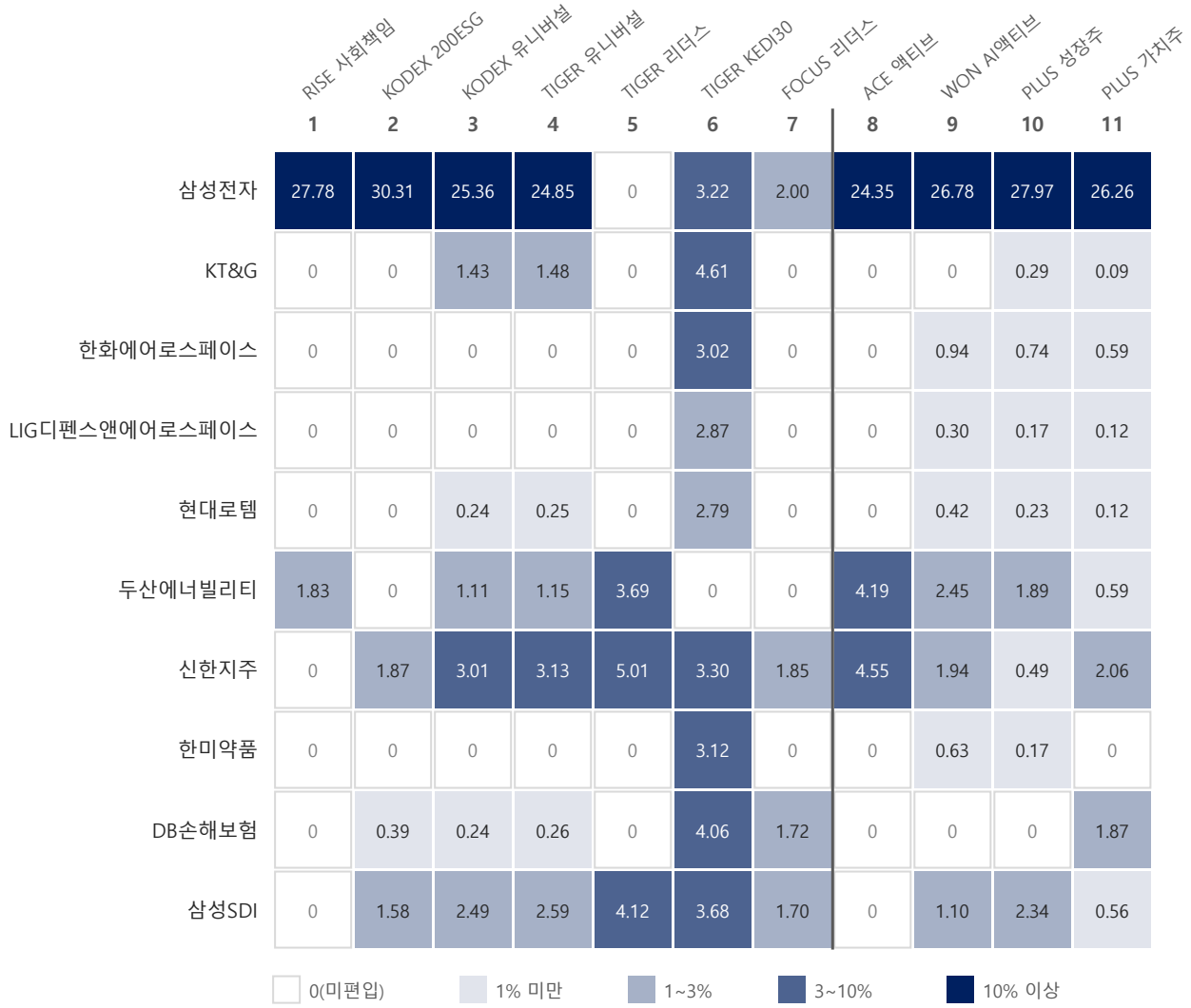
자료: 각 운용사 홈페이지 PDF(2026.10.23 게시), 한국거래소 Open API(2026.10.22 시세) / 더밸류연구소 계산

일부 상품은 크게 담고, 일부는 담지 않았다

선택이 갈린 기업 10곳의 상품별 비중

사례 기업의 상품별 비중

단위: %. 비중(NAV 대비), 0 = 미편입. 1~7 패시브, 8~11 액티브



색은 5개 구간이라 같은 구간 안의 차이는 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칸의 숫자 참고). 6번은 30종목 동일가중 지수(종목당 기준 비중 약 3.3%)라 편입 종목 대부분이 3~10% 구간에 든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옛 LIG넥스원(종목코드 079550)이다. 기업 단위(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 합산). 상품 번호: 1 RISE ESG사회책임투자, 2 KODEX 200ESG, 3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설, 4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설, 5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6 TIGER KEDI혁신기업ESG30, 7 FOCUS ESG리더스, 8 ACE ESG액티브, 9 WON AI ESG액티브, 10 PLUS ESG성장주액티브, 11 PLUS ESG가치주액티브.

자료: 각 운용사 홈페이지 PDF(2026.10.23 게시), 한국거래소 Open API(2026.10.22 시세) / 더밸류연구소 계산

사례별로 확인한 규칙과 확인하지 못한 것

공식 자료(지수 방법론, 투자설명서)로 확인한 범위

기업	편입 현황	공식 자료로 확인한 규칙	확인하지 못한 것
삼성전자	10개 2.00~30.31%, 5번만 0	5번 지수(MSCI Selection 방법론)는 ESG 등급, 논란 점수, 섹터 50% 커버리지로 편입 종목을 고른다. 8번의 비교지수는 "시장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매기준시점마다 특별편입"하는 조항이 있다	5번 지수에서 빠진 구체 사유와 시점
KT&G	6번 4.61%, 3·4번 1.43·1.48%, 10·11번 소액, 나머지 6개 0	1·2·7번 지수는 담배 등 관련 매출 비중 20% 미만만 편입, 5번 지수와 8번 비교지수는 담배 생산기업 배제. MSCI 유니버설 방법론에는 담배 배제가 없다. 3번 투자설명서는 지수 개요에 담배 관련 기업 배제를 적었다	3번 투자설명서 문구와 실제 편입의 차이, 9번 미편입 사유
방산 3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옛 LIG넥스원), 현대로템)	6번 2.79~3.02%, 액티브 3종 소액, 1·2·5·7·8번 0	1·2·7번 지수는 군수산업 관련 매출 20% 이상 배제, 5번 지수와 8번 비교지수는 재래식 무기 매출 10% 이상 배제 규정이 있다. 3·4번은 현대로템만 편입	MSCI 유니버설 지수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미편입 사유
두산에너빌리티	8개 편입(8번 4.19%, 5번 3.69%), 2·6·7번 0	코스피200 구성종목(10.22 지수 구성 자료)이며 한국거래소 지수의 업종 배제 목록(도박, 담배, 주류, 군수산업)에 원자력은 없다	2·7번 지수 미편입 사유 (확인 못 함)
신한지주	10개 편입(최대 5.01%), 1번만 0	1번 지수는 KCGS 사회(S) 점수만으로 종목을 고른다. 코스피200 구성종목(10.22 지수 구성 자료)	사회 점수 순위(SK텔레콤도 1번만 미편입)
한미약품	6번 3.12% 등 3개	기준일 MSCI Korea 추종 ETF(KODEX MSCI Korea TR) 10.23 PDF에 없다(간접 확인, MSCI 구성종목 원자료 비공개). MSCI 계열 3·4·5번과 8번 비교지수의 유니버스 밖일 가능성. 코스피200에는 포함	한국거래소 지수 미편입 사유
DB손해보험	6개 편입(6번 4.06%, 11번 1.87%, 7번 1.72%), 1·5·8·9·10번 0	코스피200 구성종목, MSCI Korea 추종 ETF에도 포함. 비중이 큰 6번은 동일가중, 7번은 ESG 통합점수 가중	5번 지수 선정 탈락 사유, 1번 미편입 사유
삼성SDI	9개 편입(5번 4.12%, 6번 3.68%), 1·8번 0	8번 비교지수와 같은 MSCI 리더스 계열인 5번 지수에는 포함. 8번은 비교지수 70% 이상 추종에 비중 조정과 지수 외 종목 편입을 허용하는 액티브	8번 미편입이 운용 판단인지 비교지수 구성 결과인지, 1번 미편입 사유

규칙과 실제 편입이 맞는지까지만 확인했다. 종목별 ESG 점수는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미편입을 ESG 평가가 나쁘다는 뜻으로, 공통 편입을 모든 운용사가 ESG 우량으로 인정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다. 사례 기업 전체의 상품별 비중과 근거 문서는 별도 데이터북(엑셀) 06 시트에 있다.

자료: 한국거래소·MSCI 지수 방법론, 각 운용사 투자설명서(DART), 운용사 PDF(2026.10.23 게시) / 더밸류연구소 계산

명단은 갈렸지만 9개 상품의 비중은 공통 핵심 14곳에 몰렸다

같은 데이터의 다른 각도: 상품별 비중 구성

번호	상품	종목 수	공통 핵심 14곳 비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위 10개 종목	단독 편입 수	단독 편입 비중
1	RISE ESG사회책임투자	126	77.18	56.35	78.05	22	1.23
2	KODEX 200ESG	112	70.11	52.27	70.05	1	0.06
3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설	70	70.85	48.94	70.79	0	0.00
4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설	70	69.71	46.86	69.66	0	0.00
5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31	70.87	23.92	73.29	0	0.00
6	TIGER KEDI혁신기업ESG30	30	30.02	5.95	39.42	0	0.00
7	FOCUS ESG리더스	149	26.80	4.49	24.60	16	1.16
8	ACE ESG액티브	25	74.14	37.81	75.29	0	0.00
9	WON AI ESG액티브	57	58.35	43.86	60.05	1	0.46
10	PLUS ESG성장주액티브	161	51.52	40.66	57.36	26	7.12
11	PLUS ESG가치주액티브	190	55.18	43.08	58.72	29	3.98

단위: %, 종목 수·단독 편입 수는 개. 공통 핵심 = 10개 이상 상품이 함께 담은 기업 14곳. 단독 편입 = 그 상품에만 있는 기업. 비중은 현금 포함 NAV 대비(예: 9번은 현금 11.56%). 공통 핵심은 기업 14곳(보통주와 우선주 합산)의 합이고 상위 10개 종목은 종목 10개의 합이라, 2·3·4·7번처럼 공통 핵심 비중이 상위 10개 종목 비중보다 클 수 있다.

공통 핵심 14곳은 TIGER KEDI혁신기업ESG30, FOCUS ESG리더스를 뺀 9개 상품에서 비중의 51.5~77.2%를 차지한다. 같은 9개 상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비중은 23.92~56.35%다. 1개 상품에만 있는 기업의 비중 합계는 PLUS ESG성장주액티브 7.12%를 빼면 상품별 3.98% 이하다.

비중 중복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나머지를 100%로 다시 환산하면 액티브 간 평균은 64.2% → 42.2%, 패시브 간 평균은 50.8% → 52.9%가 된다(민감도 계산, 기본 지표 아님).

상품을 비교할 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항목. ESG라는 이름이 같아도 다음 세 가지는 상품마다 다르고, 투자설명서와 PDF로 확인할 수 있다. ① 업종 배제 규칙: 담배·군수·원자력 등 매출 기준 배제가 있는 지수(1·2·7번, 5번과 8번 비교지수)인지 확인할 수 있다. KT&G와 방산 3사의 편입 차이 일부는 이 규칙과 부합하지만, 개별 미편입 사유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8쪽). ② 가중 방식: 6·7번을 뺀 9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비중이 23.92~56.35%, 동일가중인 6번은 5.95%, ESG 점수 가중인 7번은 4.49%다. ③ 담는 종목 수와 상위 10개 종목 비중: 25~190종목, 24.60~78.05%로 상품마다 다르다.

자료: 각 운용사 홈페이지 PDF(2026.10.23 게시), 한국거래소 Open API(2026.10.22 시세) / 더밸류연구소 계산

부록: 상품별 지수·운용 규칙 요약

2026.10.23 공개된 지수 방법론과 투자설명서 기준

번호	ESG 평가	선별	제외	가중	종목 상한
1	KCGS 사회(S)	3년 평균 사회점수 상위 (코스피 70, 코스닥 30) + 심사연도 20	도박, 담배, 주류, 군수산업 매출 20% 이상	유동시총	27%(방법론)
2	KCGS 통합	코스피200 중 3년 평균 통합점수 상위 100 + 부문별 상위 30	도박, 담배, 주류, 군수산업 매출 20% 이상	유동시총	27%
3	MSCI ESG	MSCI Korea에서 배제 후 전부 편입, 등급·추세 점수로 비중 조정	논란 무기 7종, Red Flag 논란, 평가 미보유	시총×ESG 점수	종목 30%
4	MSCI ESG	3번과 같은 Universal 방법론	3번과 같음	시총×ESG 점수	발행사 25%
5	MSCI ESG	등급 BB 이상, 논란 점수 기준, 섹터별 유동시총 50% 목표	담배 생산, 재래식 무기·원자력·주류·도박 매출 10% 이상 등	유동시총	30%
6	한국경제 ESG 평가위원회	혁신성 설문 상위 50 중 ESG 점수 상위 30	혁신 산업 미영위 종목 (업종 배제 규정 없음)	동일가중	기재 없음
7	KCGS 통합	부문 점수 요건 + 3년 평균 100 + 심사연도 50, 150종목	도박, 담배, 주류, 군수산업 매출 20% 이상	ESG 통합점수	유동시총·거래대금 비중의 5배
8	MSCI(비교지수) + 자체	비교지수 70% 이상 추종, 비중 조정·지수 외 종목 허용	비교지수: 주류, 담배, 도박, 원자력, 무기 생산기업	운용 재량	비교지수 8.5% (삼성전자 20%)
9	지속가능발전소	비교지수: ESG 점수 상위 30% 중 유동시총 상위 100	업종 배제 규정 기재 없음	운용 재량 (비교지수는 ESG 리스크 할인)	비교지수 10%
10	한화자산운용 자체	비교지수: 성장 스타일 최적화, 70% 복제 + 30% 액티브	업종 배제 규정 기재 없음	운용 재량(ESG 높을수록 초과비중)	기재 없음
11	한화자산운용 자체	비교지수: 가치 스타일 최적화, 70% 복제 + 30% 액티브	업종 배제 규정 기재 없음	운용 재량(ESG 높을수록 초과비중)	기재 없음

1·2·7번은 한국거래소 방법론, 3·4·5번은 MSCI 방법론과 투자설명서, 6·8~11번은 투자설명서 요약 기준(지수사업자 원문 미확보). ESG 평가·선별·제외·가중·상한은 문서 표현을 줄여 적었다. 기준일 적용 여부와 상한 초과 설명은 11쪽, 문서명·쪽·접수번호는 별도 데이터북(엑셀) 07 시트.

자료: 한국거래소·MSCI 지수 방법론, 각 운용사 투자설명서(DART), 운용사 PDF(2026.10.23 게시) / 더밸류연구소 계산

부록: 방법과 한계

지표 정의, 자료, 확인하지 못한 범위

지표 정의

지표	정의
편입	PDF 수량이 0보다 크면 편입
기업 단위	같은 발행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비중 합산(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현대차와 현대차우·현대차2우B)
비중	수량 × 2026.10.22 종가 ÷ (2026.10.22 NAV × 설정단위). 현금 포함 NAV 대비, 한국거래소 PDF 구성비중과 같은 산식
평균 비중	11개 ETF 비중의 평균. 확인된 미편입은 0
비중 차이	상품 간 최대 비중 − 최소 비중(미편입 0 포함), %p
비중 중복도	종목마다 두 ETF 비중 중 작은 값의 합. 각 ETF 직접 보유 주식 합계를 100%로 환산한 비중 사용
자카드 유사도	두 ETF 공통 종목 수 ÷ 두 ETF 종목 합집합 수

자료와 한계

편입 내역은 11개 상품 운용사 홈페이지의 2026.10.23 PDF(수량)를 모두 확보해 썼다(누락 0). 비중은 한국거래소 Open API의 2026.10.22 종가·NAV로 직접 계산했다. 2026.10.26 한국거래소 2026.10.23 PDF와 대조한 결과 1,021종목의 편입 종목, 수량, 평가금액이 모두 같았다. 한국거래소 공시 구성비중은 2026.10.23 가격과 NAV 기준이라 이 보고서 비중과 최대 1%p 안팎 다르다. 코스피200 구성 여부는 2026.10.22 한국거래소 지수 구성 자료로 직접 확인했고, MSCI Korea 구성 여부는 구성종목이 공개되지 않아 추종 ETF(KODEX MSCI Korea TR)의 2026.10.23 PDF(2026.10.22 장 마감 보유)로 간접 확인했다. 업종은 2026.10.22 한국거래소 업종분류를 썼다.

지수 규칙(10쪽): 2026.10.26 확인 결과 한국거래소 3개 지수, MSCI 계열, FnGuide 지수는 2026.10.22까지 시행된 방법론 개정이 없었고, 11개 투자설명서는 모두 기준일 시점의 최신 효력판이다(DART 정정 공시 없음). KEDI, MK-iSelect 지수는 지수사업자 공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예정된 개정(Leaders 150 산업분류 11.20, 코스피200 11.2 시행)은 기준일 이후다. 종목 상한은 정기변경·리뷰 때 적용한다(한국거래소는 매년 6월·12월 코스피200 정기변경일에 CAP Factor 조정, MSCI는 분기 리뷰). 그 사이 주가가 오르면 비중이 상한을 넘을 수 있어, 1번의 삼성전자 27.78%(7쪽)와 SK하이닉스 28.56%(4쪽 최대 비중), 2번의 삼성전자 30.31%(7쪽)가 27%를 넘는다. 8번은 액티브라 펀드 비중이 비교지수 상한과 다를 수 있다.

하루치 편입 내역이므로 비중 차이만으로 매매나 편입 판단의 변화를 말할 수 없다. 종목별 ESG 점수·등급은 확보하지 않았다. 수익률 비교와 ESG 우열 평가는 범위 밖이다. 원자료, 계산 과정, 상품별 편입 전체는 별도 데이터북(ESG_ETF_편입비교_20261022.xlsx)에 있다.

자료: 각 운용사 홈페이지 PDF, 한국거래소 Open API / 더밸류연구소 계산